

지역 소식통



웅동면 웅동농악단 단풍미인기 농악경연대회 우승

웅동면 웅동농악단(단장 차영희)이 최근 (사)한국국악협회 정읍 지부 주관으로 정읍 천변어린이 축구장에서 열린 제14회 단풍미인기 읍면동 농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상 수상은 농어촌희망재단이 주관하는 '농촌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인 두레 농악교실과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매주 2회 이상 진행되고 있는 농악교실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결실로 평가된다.

단원들은 이번 대회 출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웅동전통생활문화관에서 매주 3회 이상 연습에 구슬땀을 흘려왔다.

차영희 단장은 "비쁜 시간을 쪼개 빠짐 없이 연습에 참여해준 단원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농악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소방서, 소화기 사용 주택화재 초기 진화 박경호씨 표창

부안소방서는 소화기를 사용해 주택화재를 초기 진화한 박경호(48)씨에게 표창장과 소화기 4대를 전달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부안군 동진면 논밭이 인접한 농가주택 인근에서 시작된 화재로 불타가 주변 목재에 옮겨 붙어 연소 확대된 상황에서 박씨는 소화기 2대를 사용하여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강동일 서장은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책임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많은 관심과 설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부안소방서는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 시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하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더블(double)보상제를 실시 중이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오복마실축제 오늘 개막

특색·역사·전통문화 살린 5개 분야 47여개 프로그램 군 전역서 열려

6일까지 3일간 진행

부안군은 제5회 부안오복마실축제가 오늘 부안읍 서부타치널 메인무대 등에서 북(福) 받는 날 퍼레이드를 비롯한 개막식을 갖고 6일까지 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화 세상 벗남네야, 북 받으러 마실가세!'를 주제로 열리는 부안오복마실축제는 부안만의 특색과 역사, 전통문화를 살린 5개 분야 47개 프로그램으로 치러진다.

13개 읍면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북 받는 날 퍼레이드'는 '부래만복(扶來滿福·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다)'의 고향 부안을 표현한 각계각층의 퍼레이드로 군민들에게는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객들에게는 부안과 부안오복마실축제를 홍보함과 동시에 축제 개막을 알리고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고취시킬 계획이다.

개막식은 축사와 내빈소개 등을 생략하고 무대 앞 주요 내·외빈의 지정석을 과감하게 없애 주민과 관광객이 우선인 축제를 표방하고 있으며 부안군의 위상을 드높인 군민을 시상하는 군민의 장 시상식과 부안오복마실축제 제전위원장의 개막선언 등으로 간소화했다.



올 부안오복마실축제는 군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대동한 마당과 부안마실 오복 받아라 등 대표 프로그램 및 상설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등 부안의 자연과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알차게 구성됐다. 특히 외국인유학생과 에콰도르·콩고 등 주한 외국인 300여 명이 부안을 찾은 계기로 글로벌 축제로 발판을 마련했다.

중국유학생과 에콰도르·콩고·우즈베키스탄·네팔·키르기스스탄·러시아 등 주한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 300여 명은 부안오복마실축제 기간 부안을 찾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예정이다.

부안마실축제 제전위원회는 "제5회 부안오복마실축제는 부안만의 특색과 역사, 전통문화를 살린 거리형 축제"라며 "5월 가정의 달 첫 주말 사랑하는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부안으로 마실 오셔서 오복을 누리고 오감을 느끼는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전북투어패스 정착 관광객 유치 전력

특별할인가맹점 모범음식점·숙박업소 등 중심으로 5월중 100개소로 확대

고창군이 관광객들이 더 오랜 시간 고창에서 머물면서 지역 명소를 관광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당일 관광에서 탈피해 도내 전역을 관광하는 전북도의 토탈관광 관광을 실현하고 보다 편리하게 고창군을 관광할 수 있도록 전북투어패스에 발맞춰 관광 안내소를 정비하고 정보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토탈관광 브랜드를 활용한 고창읍성 관광안내소 등 8개소를 정비하고 브랜드 LED 채널기반, 투어패스 알립실사 등을 제작했으며 자유이용시설 및 판매소 설치, 특별할인가맹점을 모집했다.

고창군에는 전북투어패스라인 자유이용 시설로 고창읍성, 판소리박물관, 고인돌박물관, 동리시네마 등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판매소로는 고창읍성 관광안내소, 고인돌박물관판매소, 선운산 관광안내소 등 3개소를 설치했으며 특별할인가맹점 모집을 통해 맛집, 숙박, 제과점 등을 33개소로 모집하여 전라북도 목표 30개소를 최초로 달성하는 등 투어패스 정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자유이용시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46개소인 전북투어패스 특별할인가맹점을 모범음식점과 숙박업소, 체험프로그램 등 중심으로 5월중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지속적으로 토탈관광 활성화를 위해 언론매체와 SNS 등을 활용해 홍보하면서 토탈관광과 연계한 지역 특색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투어패스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광객 대상 모니터링도 실시하면서 2017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고창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문화관광 홍보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전북투어패스는 1일권 관광형은 8800원, 교통형은 1만2900원, 모바일형은 6900원, 2일권 관광형은 1만3900원, 교통형은 2만3400원, 모바일형은 1만2900원, 3일권 관광형은 1만9900원, 교통형은 3만3900원, 모바일형은 1만18500원에 각각 여행 패스권을 판매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대상
故이희우·문홍식 선생 선정

정읍시가 제정한 동학농민혁명 대상 제7회 수상자로 제8대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장과 성균관 부관장을 지낸 고(故) 이희우씨와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문홍식 부회장(80)이 선정됐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문 연구자를 비롯한 관련 단체, 학계·시의회·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학농민혁명정신선안위원회'는 지난 1일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 이같이 선정됐다.

고(故) 이희우 제8대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장 : 고(故) 이희우씨는 제13회 갑오동학혁명기념문화제 대회를 역임하면서 1980년 5월 10일부터 2일 간 정읍농고(현재 정읍제일고) 교정과 시내 일원에서 열린 제3회 갑오동학혁명기념 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 혁명 정

신을 계승발전시키는데 지대하게 공헌했다.

당시 신군부 계엄정권의 위협과 신변 위협을 무릅쓰고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초청 참석토록 함으로써 15만여 명이 인파가 운집 성공적인 기념제의 힘이 됐다.

문홍식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부회장 : 문홍식(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부회장은 충남 태안 출생으로 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군을 이끌고 혁명을 추진하다 피체되어 충실형당한 문장포의 후손이다.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고창에서 1964년 동학정신 선안회를 결성하는 등 동학농민혁명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일 열린 예정인 제50회 황토원동학농민혁명기념제 기념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안전성평가연구소·감염동물시험 연구동 준공

안전성평가연구소 미니픽 및 감염동물시험 연구동 준공식이 지난 신정동 현지에서 있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읍인안전연구본부 내 1만1000㎡ 부지에 총 사업비 208억원이 투입돼 건립된 미니픽 및 시험연구동은 연면적 4827㎡로 지하1층 지상 3층이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생리생물학적으로 인간과 유사한 동물종인 미니픽을 이용한 독성 연구와 바이러스 질환 해결을 위한 감염동물 실험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김생기 시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의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추진과 미니픽 시험연구동 국가 예산 확보와 예산 배정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는 설득 등을 통해 준공 결실을 거두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국내 독성 연구 분야 선도는 물론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안전성평가연구소 정문구 소장과 한국화학연구원 이규호 원장, 김생기 시장, 안전성평가연구소 전임소장 등 내외 100여명이 참석해 기념식수와 함께 테이프 커팅 등의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 선운사 봉축법요식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에서 부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대가람 재가량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선운사 주관으로 3일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거행된 봉축 법요식은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고창군의회위원장, 군의원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육법공양,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관복 및 헌화,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

경우 주지스님은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이치를 되새기고 서로가 행복하고 상부상조하며, 상호 존중하고 감사하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GOCHANG COUNTY 한국인의 본향 고창, 도깨비가 사랑한 정보리밭! 제14회 고창 정보리밭 축제 2017. 4.22(토) ~ 5.14(일) 23일간 전북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일원